

방역 소독했는데도 가축전염병에 노출?

제주대 연구 결과 차량 100대 중 4대 풀 양성 반응 운전석 오염 상대적 취약... 방역 사각지대 줄여야

제주항과 돼지 사육 농장 등을 오가는 차량 100대 중 4대 풀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차량에서는 소독 후에도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다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시험소)의 의뢰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가축전염병 전파 경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양돈장 시설을 포함해 제주항 입도 차량과 거점소독시설 이동 차량, 가축분뇨·사료 운송 차량에서 채취한 650개 시료에 대한 검사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 양성률은 0.3%, 돼지 생식기 호흡기 중

후군(PRSV) 양성률은 4%를 각각 기록했다.

동물시험소 측은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돼지가 아닌 차량 등 기계적인 요인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전파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이같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산학협력단이 제주항 입도차량 3대, 양돈장 30곳, 가축분뇨·사료 운송 차량 50대, 돼지 송수차량 30대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사 대상별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양성 비율은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이 10.8%로 가장 높았다. 양돈장

입구, 돈사 입구 등에서 채취한 시료 120개 중 13개에서 PED 또는 PRSV 항원이 검출됐다. 이어 제주항 입도 차량(9.1%), 거점소독시설 이동차량(8.3%), 사료운반차량(3.8%), 도축장 출입차량(1.6%) 등의 순으로 양성률이 높았다. 차량만 따졌을 때 평균 양성 비율은 4% 남짓이었다.

특히 차량에선 사람이 탄 운전석이 가축전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차량 부위별 검사에서 운전석 양성 비율이 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적재함(4.2%), 액비주입구(3.7%), 차체 표면(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소독 후에는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등

라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운전석에서는 2개 시료가 소독 후에도 양성으로 나타났다. 또 액비주입구 시료 1개, 적재함 시료 2개, 차체 표면 시료 1개에서도 소독 후 양성 반응을 보였다.

동물시험소 관계자는 "일부이긴 하나 소독 사각 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소독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더 꼼꼼한 소독도 필요하지만, 운전석과 적재함 등 차량 내부에서 비교적 높은 양성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차량 운전자는 농장에 드나들 때 반드시 장화와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여성 인권 존중·성평등 사회 만들기 노력”

어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당·국민의힘 도당 성명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해 “여성이 존중 받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에서 “모든 여성에게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제주 여성은 인정이 넘치고 강인했으며 불의 앞에 당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혐오와 차별, 배제가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성차별과 경력단절, 여성대상 범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며 “특히 현대사적으로 보면 위안부 문제부터 최근 고위층의 성추행 문제까지 여성성이 짓밟히는 야만적 행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 인권이 더욱 존중받으며,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자체 계약심사제로 33억 절감

지난 7년간 681건 예산 심사

서귀포시가 자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지난 7년간 33억원을 절감했다. 2014년 자체 제도 수립 시행 이후 연평균 97건을 처리하며 연간 4억8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공사나 용역 등 각종 사업 시행 전 적절한 원가산정을 검토하는 자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4억60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최근 7년간 681건에 대한 예산 1259억원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33억원(2.68%)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자체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2억~5

억), 용역(7000만원~2억원), 읍면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제도를 운영하며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인건비 도시지역 도입할증(지방계약법에 따른 15% 가산 가능)을 반영,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을 조절하고 있다.

계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의 시행 전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다. 내역에 대한 수량 및 산출 오류 등을 확인해 예산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소 결핵병 제로화’ 추진 올해 1만5100마리 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소 결핵병 발생 제로를 목표로 소 결핵병 근절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소 결핵병이 2017년 들어 7농가·48두가 발생됨에 따라 2018년부터 ‘소 결핵병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검사대상을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로 확대해 감염속 검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3년째인 2020년에는 소 결핵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감염 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 결핵병의 특성과 전파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진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왔다.

우선 결핵병 검진 방법을 기존 PPD검사(결핵피부반응검사)에 감마인터페론검사(혈액검사)를 추가해 검사법을 개선했다.

또한 도축장 해체검사(내장·지육검사)를 통해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은 감염축을 색출했으며, 소 가축시장 출하 등 이동 전 사전검사를 의무화해 소 이력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목장으로 방목하는 축우에 대해 방목 전 검사를 완료해 농장 간 전파고리를 차단했다.

올해는 만 12개월령 이상 한우 및 육우, 젖소 등 1만5100마리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고대르기자



들녘엔 유채꽃 가득 8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활짝 핀 유채꽃 사이에서 무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인허가 민원 접수처리 불편 해소한다

제주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20일 이상 민원 등 48종 대상

인허가 민원 접수 처리와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후견인제가 운영된다.

제주시는 처리기간 20일 이상 민원 등 48종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 경험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지정해 민

원접수부터 종결까지 책임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따라 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 등 12개 부서의 팀장급 18명의 공직자들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안내도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지정(변경)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민원이 원할

히 접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시는 이들 후견인에 대한 후견활동 실적을 상반기(2월~6월)와 하반기(7월~12월)에 각각 평가해 우수 후견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50건 중 298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해 포상을 실시했다.

이윤형기자 yhleee@ihalla.com

“유충사태 조사·대책 마련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서귀포 지역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공사를 즉시 멈추고, 유충 발생 관련 진상조사 후 세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귀포 시민의 식수원인 강정천의 물이 정수장을 거치면서 오염됐고, 제주도 상수도본부는 그 원인이 지난 2월초 진입로공사 과정에서 송수관이 파열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진상조사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19개소 38명(2인 1조)의 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제주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또 안전한 통학로 확보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개선점 등을 점검하고 제주여성 교통봉사대와 민관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학교 교통환경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윤형기자 haru@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20kg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추는 역할, 양분공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코코리 검색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